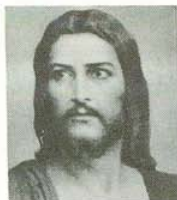


있던 카페지에서 살해되기. 인구 20,000 명의 번영하는 도시로 발전했다. 교회로 개종한 디어도어 고르가 형제가 그린 이 그림은 유다루 슐트레이



성도의 빛 6  
1982



# 성도의 벗 6

1982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차 례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엘 앨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애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클리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경건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1

질의 응답 ..... 리랜드 에이치 켈트리 ..... 6

화염을 뚫고 ..... 스티브 체리 ..... 10

입을 열라 ..... 조 제이 크리스티슨 ..... 13

특별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한 편지 ..... 마리 요한슨 ..... 19

질문 상자 ..... 노라 킴슨 ..... 21

여성의 신권관 ..... 페트리시아 티 홀랜드 ..... 22

기도에 대한 간증 ..... 수전 태너 홈즈 ..... 29

캐더린의 신앙 ..... 클리포드 제이, 마샤 롬니 스트래튼 ..... 31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 앤 에드워드 캐넌 ..... 35

그들을 찾아라 ..... 로이든 지 데릭 장로 ..... 39

김블 대관장이 인생을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심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42

내 친구 ..... 51

소말리아의 낙타와 수업 ..... 매리 게이먼 ..... 53

심심풀이 ..... 58

지역 지도자 메시지 ..... 한 인상 지역 대표 ..... 59

해외 소식 ..... 60

지역 소식 ..... 62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인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03호, 제18권 제 6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60KO PRINTED IN SEOUL, KOREA 6/82

© 1982년  
대한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권장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 경건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사전에 보면 경건을 “사랑과 헌신이 합친 깊은 존경”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헌신이 합쳐진 이 존경과 헌신은 예배의 엄숙함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더 경건해지게 됩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서의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가 됩니다. 나는 우리의 몇몇 모임의 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깊은 경건으로 임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의존하고 그분으로부터의 영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깊은 경건을 지닌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해와 사랑으로 그것을 경청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소망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짐에 따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건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첫째되는 계명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곧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계명]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7, 39-40)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뜻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란 말을 사용하여 그분은 유대

인들이 공경하노라고 공언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기록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집에서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한 것은 물론 경건과 연관이 있지만 조용한 것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집이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알면, 경건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경건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1-5)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그루의 떨기나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으며, 주님이 거기 계셨으므로 경건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집은 그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집에서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린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이해와 사랑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물론 교사들도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그곳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한복음 2:13-16)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의 집이 다시 성스럽게 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초기의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이 집에서 경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가 그곳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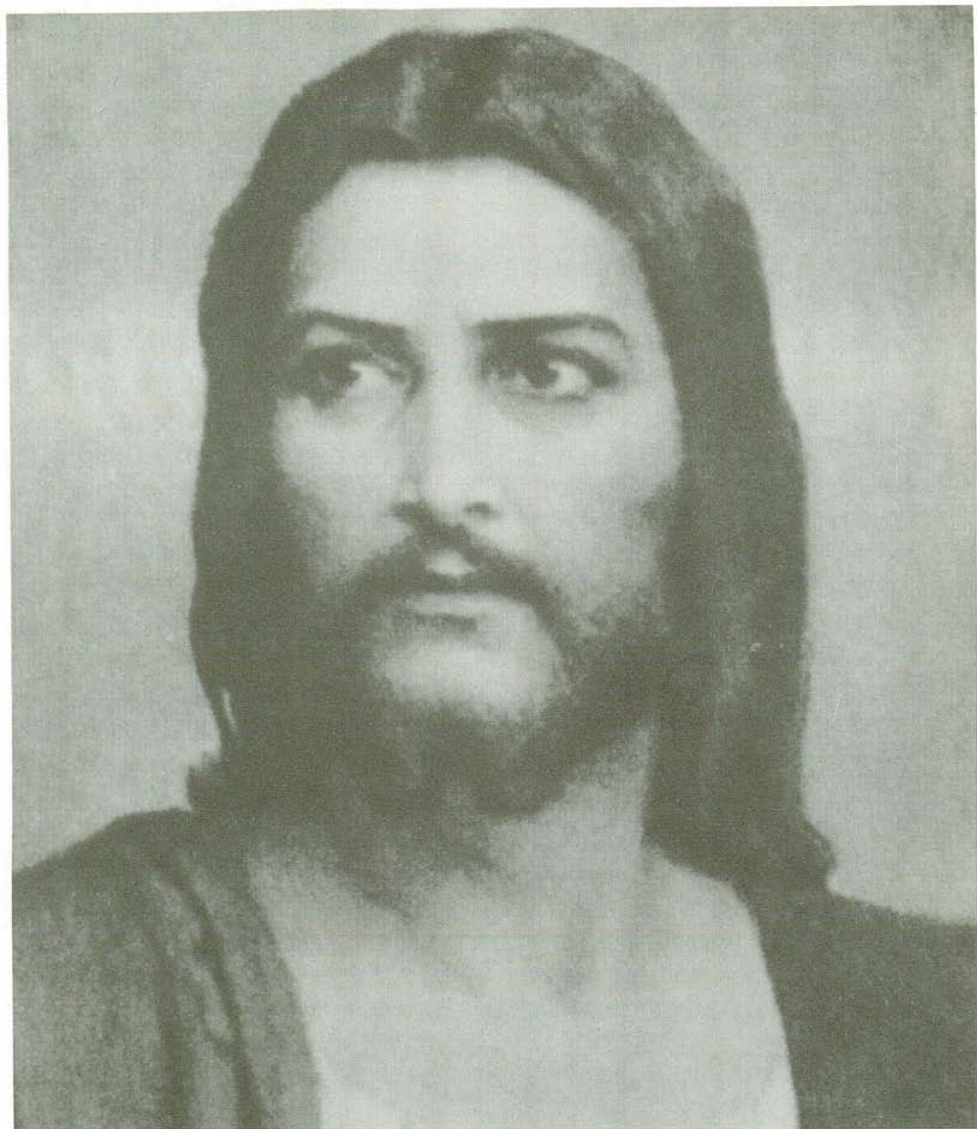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더럽힘을 받으면 나는 그 안

---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따라서 나의 영광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나는 기록하지 아니한 신전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97 : 15-17)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경건치 못한 것이 반드시 어린이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부모의 행동과 비효과적인 자녀 교육과 부모 자신이 주님의 특정한 계명에 불순종한 것에서 기인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대함에 있어 계명을 지키는 부모는 대개 가정에서 경건을 유지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첫째되는 책임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 경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면의 사랑을 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과 주님의 집에서 경건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경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그분의 자녀와 후사로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존경과 경건을 지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 : 16-17)

사람이 몸과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경건성을 갖고자 함에 있어 사도 요한이 하신 다음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

다 더 효과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한일서 3 : 1-2)

그런 후 그는 이 고귀한 말씀에 의해 감동을 받은 자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일서 3 : 3)

여기에서 요한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은 약속을 믿는 자와 경건한 영을 지닌 자, 즉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정에 대해서도 경건한 마음을 품은 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신권에 대한 경건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번은 사울의 판단으로는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

이러고 다윗을 찾아 동굴의 입구까지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때에 동굴 깊은 곳에 있었으나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로해진 사울은 잠시 쉬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찢려”(삼상 24: 4-5)

우리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거기에 갔고,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다만 그의 옷자락의 일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찢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음 기록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

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삼상 24: 6-10)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다윗의 행위는 신권에 대한 경건, 즉 주님을 대표하는 신권 소유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 관하여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경건심을 품어야 하며 그분의 집에 대해서도 경건으로 대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신과 신권에 대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경건을 배우도록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는 열의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1. 경건의 중요성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 준다. 가족에게 경건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을 말하도록 한다.
2. 이 기사에 가족이 소리내어 읽기를 원하는 성구나 다른 인용문이 있는가? 그 외에 그들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 다른 보충 성구가 있는가?
3. 가족이 주님과 주님의 집과 신권 지도자와 가정과 그들 자신에게 대해서 경건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4. 롬 1 부대판장이 설명한 사랑과 경건과의 관련성을 토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더 경건해”지는 것은 왜 옳은가?
5. 방문 전에 가족과 함께 토론하면 이 토론은 보다 훌륭한 것이 될 것이다.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정에게 경건에 관해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리랜드 에이치 젠트리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 교수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4가지 주요 사업인

계보, 복지, 선교 사업,  
가족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종교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목적과 방법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옛 이스라엘에도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신권 사업의 주요 사항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유독 가족에 관한 사항이 옛날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심의 초점이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아버지에게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

할 책임뿐만 아니라 훈련과 교육에 관한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7) 주전 600년경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언자 리하이는 이 훈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니파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니파이일서 1:1)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권 또한 높이 존경하였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창세기 30:1) 이것은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없애 주시고 아들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사무엘상 1:11 참조) 특히 히브리 여인은 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잠언 1:8)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12)는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였던 평범한 경구 이상



의 것이었으며 이것은 계명이었습니다.

**복지.** 가난한 자들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관대한 자나 탐욕스러운 자들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밭에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가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 두라는 명이 제정되었습니다. (레위기 19 : 9-10; 신명기 24 : 19-21 참조) 이사야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이사야 1 : 17)고 권고했으며 스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스가라 7 : 8-10)

분명히 그 당시의 복지란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양식과 주거를 제공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할 수 있고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신성한 노동은 커다란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잠언 13 : 11)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잠언 14 : 23)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언 10 : 4)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도서 9 : 10)

부채를 지지 않는 일과 절약은 똑같이 강조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웃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는 악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37 : 21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빚진 자는 그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채주의 종이 되어 문자 그대로

로 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22 : 7 참조) 절약에 관해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이사야 55 : 2)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시간은 귀중한 것이므로 금전을 절약하는 것과 같이 시간도 절약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자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궁핍한 자를 돕는 한 가지 수단은 금식의 법이었습니다. 양식을 가진 자는 일정한 시간 금식하여 절약한 양식이나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주린 자에게 배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베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베 끌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 : 6-7) “네 꿀옥”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늙으신 부모나 어린 자녀, 또는 자신의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흉년에 양식을 비축해 둔 애굽에 팔려 간 요셉의 업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1 : 34-36, 49참조) 또한 주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말라기 3 : 10)라고 권고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 사업.**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 땅에 진리를 전파하라는 지시

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당시의 선교 사업은 주로 배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성약에서 “세상의 모든 권속이……복음의 축복……을 얻으리라.”(아브라함서 2 : 11)는 축복이 주어졌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비이스라엘인으로부터 초연한 위치에 있기를 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어울리게 되면 그 민족과 곧바로 뒤섞이어 그들의 악행을 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거나 언약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 : 2-3 참조)

개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히레헴에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갔을 때 그들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두 여자 중 하나는 히브리 생활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때 룯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룯기 1 : 16) 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분명히 선교 사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룯의 개종이 완전하고 철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진 이와

비슷한 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에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사실은 몇몇 구약성서 구절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만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시도했던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장차 있을 이방인의 개종을 예견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징조”(이사야 11 : 10)를 구하게 될 날과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이사야 66 : 19)에 선포될 날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말라기 1 : 11) 될 때를 예견했습니다.

**계보와 신전 사업.**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구약 시대에는 행해지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첫번째 분이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일이며, 이로써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허락된 것이었습니다.”(구원의 교리, II권 : 102)

계보 활동과 기록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계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역대상 9 : 1) 이들 가운데도 계보가 엄격하게 기록된 것은 고대 제사장과 레위와 아론의 지파였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에게만 회장단의 권능이 주어졌고 제사장들

과 레위인들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말라기는 엘리야의 오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라기 4:6) 그렇지 아니하면 저 주로 그 땅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는 명백히 우리가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선언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도 역시 결국에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말라기 4:1)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에게나 후손에게 인봉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아주 명백할 것입니다. 즉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록 보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되는 생활 양식의 일부였습니다. 기억의 책을 기록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모세서 6:5 참조)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과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을 정리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모세서 6:46; 아브라함서 1:31 참조) 우리는 그 이후로 특별히 기록자로서 사람들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역대상 16:4) 이스라엘의 기록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후에 직업적인 기록자들은 기록된 것을 적고 해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에스라서의 저자 에스라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에스라 7:11 참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가족 계보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계보의 명단이 구약 전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속박에서 풀려 난 후 유대인들은 더욱 열심히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에스라는 가족이 기록한 이스라엘에 관한 상세한 기사를 제시했습니다.(에스라 2,8장; 느헤미야 7:5-64 참조) 그는 또한 “열조의 사기”(에스라 4:15)에 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손으로 보관해 온 “신권의 권능에 관한 선조 곧 족장의 기록”과 “이후에 세상에 올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아브라함서 1:31) 이것을 기록한 자신의 노력에 관해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적어도 가족과 복지와 계보 사업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했음이 명백합니다.

물론 순수한 종교란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5)고 가르쳤습니다.

잠언의 저자도 이와 비슷하게 명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종교의 가장 훌륭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

**침**례를 받고 나서 몇 달 동안을 나는 모로나이가 한 다음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기 위해 성령께 매달렸습니다.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닌 신앙을 보시고 권세로써……역사하시느니라.”(모로나이서 10:5,7) 그러한 도움이 없이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1978년 1월 어느 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부서 책임자가 와서 나와 다른 두 명에게 폐기물 처리실에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분지를 짓이겨 꾸러

미를 만들고 파손되었거나 이미 구식이 된 상품을 폐기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도와 꾸러미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에어러솔 깡통을 무려 2,500개나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에어러솔 개스가 가득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경 포오크리프트(화물을 실어 올리는 장치)가 그 꾸러미를 싣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기계가 포오크를 앞으로 내밀 때 포오크리프트로부터 약 60센티미터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화염 방사기에 불을 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의 화염이 포오크리프트 아래에서 나에게로 튀어 왔고 순식간에 온 방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는 어떤 힘에 밀려서 구덩이에 빠져 버렸

## 화염을 뚫고

스티브 체리



입니다. 그것은 폭이 76센티미터나 되는 구멍이었습니다. 내 옷은 타고 있었고 구멍이에도 불이 붙고 있었읍니다.

이윽고 2,500개나 되는 에어러솔 통이 폭발하면서 무서운 폭음 소리를 냈읍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부로부터 어떤 힘이 솟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는 꾸러미를 만드는 기계를 붙잡고 구멍이로부터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계는 몹시 뜨거웠고 기어나오려고 애쓸 때마다 내 손은 데어 고통스러웠읍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내부에서 나오는 힘으로 계속 기어올라갔읍니다. 내 옷은 이미 타버려서 없어졌습니다.

방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고 동료들은 눈에 띄지 않았읍니다. 나는 모로나이서 10장 5-7절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배운 그 구절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폭발로 생긴 한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나오려고 했습니다. 후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그 구멍으로 나오고 있을 때 벽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타다 남은 벽돌 조각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읍니다. 화물 창고 뒤에 있던 한 사람이 문을 열어 주어서 나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세 동료를 보지 못했으나 후에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왔음을 알았읍니다. 전에 해군 간호원이었던 공장 종업원이 나를 지키고 있었읍니다.

구급차가 와서 나를 즉시 화상 진료 센터로 데리고 갔읍니다. 거기에서 몇 명의 간호원이 나머지 옷을 찢어 내고 약을 바른 붕대로 감아 주었습니다. 의

사는 내 몸의 약 53퍼센트가 2~3도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검사가 끝난 후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론인데, 병자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오후에 두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나에게 병자를 위한 기름 축복을 해주었고, 저녁에는 감독님과 가정 복음 교사와 친구들이 와서 또 다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에서 나는 살아날 것이며 손을 다시 완전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놀랄 만큼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구멍이에서 불길에 싸여 있었을 때 내가 경험한 내적인 힘이 다시 생겼으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읍니다.

나는 두 번이나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재하는 화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임을 믿고 있습니다. 두 주 후에 나는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실로 기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오른손과 허리에 피부 이식 수술이 있기 이전, 의사가 붕대를 제거하고는 내 손이 거의 치료되었고 전혀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피부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의 손을 보시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빨리 회복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5주 후에 퇴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기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받았던 내적인 힘이 성신의 권세였음과 이 권세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권세가 없었다면 나는 화염 속에서 살아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

# 입을 열라

조 제이 크리스텐슨



“참으로 너의 입을 열라.  
 그리하면  
 가득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천국이 가까왔음이니라.”

지난 1970년, 내가 아내 바바라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멕시코시에 도착한 며칠 후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부장님이 각각 아내를 동반하고 우리가 최초로 가졌던 선교사 대회에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후에 나는 김볼 부장님 부처를 시내에 있는 호텔로 모시고 가면서 연료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동안 아기를 푸른 색깔의 쇼울, 즉 “레보소”로 싼 맨발의 인디언 여자가 와서 껌을 내놓으며 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몇 개를 사자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우리 뒷차로 가 버렸습니다. 그때 김볼 부장님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교부장님, 우리가 누구인지 저 자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

겠습니까?”

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므로 창문을 내리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껌을 몇 개 더 사고 김볼 부장님과 김볼 자매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녀에게 “물론”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시의 교외에 살고 있었고 “흰 사쓰를 입고 다니는 젊은이” 곧 선교사를 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음 기회에 그녀가 꼭 메시지를 듣도록 권고를 했고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과연 복음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잘 모르지만, 나는 말일성도인 우

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특히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그러므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낫질하여 추수할지어다.

“입을 열라, 그리하면 가득 채워지리니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여행한 옛 니파이처럼 되리라.

“참으로 입을 열고 아껴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등에 곡식 다발을 더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가득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천국이 가까왔음이니라.” (교성 33 : 7-10)

주님께서 언거퍼 세 번이나 입을 열라고 하신 구절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부끄러움을 타고 또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기가 서먹서먹하므로 “만나기로 허락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공포”(교성 19 : 19)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입을 열 때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십년간 우리가 일년에 한 사람씩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매년 배가되는 성장률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현재 브리검 영 대학교 수학 교수인 귀환 선교사 친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교회의 성장률이 장차 20년간 계속 된다면 교회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흥미있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일에 특정한 지역에서 현재의 교회 성장률이 20년간 계속된다면 2000년까지는 그곳에 교회 회원이 약 3백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후에 나는 여러 가지 계산을 더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백 명의 회원이 매년 복음을 함께 나눌 다른 사람을 찾아 내고 또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내어 복음을 계속 전한다면 이 십년 후에는 1억 이상의 새로운 교회 회원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는 성장률이 더 커지는 경우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매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경우에는 이십년 후에는 1,048,576 명의 새로운 회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김볼 대관장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증가되는 신입 회원 수를 단지 1년에 몇 십만 명의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배우고 그들의 생에서 그 유익을 거둘 수 있는 수백만의 단위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릴 수 있다면 그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입을 여는 것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969년 여름에 나의 아내 바바라와 나는 이태리 로마에서 “소리와 빛” 쇼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좀 일찍 도착



“앞으로 이십년간  
우리가  
일년에 한 사람씩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한 우리는 약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할 것을 알고는 의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4명의 아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명은 천주교의 수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사실상, 나는 훌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어디선가 상호부조회에 나갔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또 대학생 연령의 다른 두 여성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름 방학 동안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 미국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귀국한 다음엔 무엇을 할 작정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캐시라는 아가씨였는데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며 유타 대학교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타에 온다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대학과 솔트레이크시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후 그 일에 관해서 깜박 잊고 있었는데 8월에 내게 전화가 걸려 왔고 캐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과 만나도록 식사 대접도 하여 우리가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유타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기로 결심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우리는 멕시코로 선교사로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매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 이 외에는 그녀와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약 삼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카드 뒤에 이런 글을 적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난 8월에 나는 침례받아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 오게 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신전에서 결혼했고 지금은 가족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시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지 거의 이십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내가 선교사로 일했던 아름다운 도시인 쿠에나바카와 모레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조그마한 지부를 구성했던 훌륭한 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고 교회에서 활동적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가족을 소개시킬 수 있기를 바랐으며 가족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쿠에나바카에서 지방부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일찌기 도착했습니다.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이 위대한 친구들과 따뜻한 멕시코식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조(멕시코식 포옹)에는 껴안는 것과 등을 두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인사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칠십 세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포옹을 마치고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부장님 저를 기억하

시겠습니까?”

나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여 “죄송합니다만 전 자매님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모르시겠어요? 부장님이 저를 개종시키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개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 모두를 잘 기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시에서 쿠에나바카까지 투리스모(작은 리무진 버스)를 탔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나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멕시코시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로부터 쿠에나바카에서 봉사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명을 받고 버스에 올랐을 때 그 자매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멕시코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 보았고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는 신앙개조 카드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쿠에나바카에 있는 선교사에게 그것을 주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에, 그녀와 성장한 자녀들 몇몇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고 그러한 기간을 통해 쿠에나바카 교회에서 충실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지방부 모임에서 간증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던 그날 침례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떤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개종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언제 성령이 증거하는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멕시코시 선교부에서 돌아온 직후 그곳의 교회 교육 기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를 모시고 멕시코로 가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목요일에 도착해서 거의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패커 장로님은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몹시 피곤했습니다. 패커 장로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신학 연구원 책임자들과 함께 월요일에 모임을 갖기로 하고 남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호텔에서 나와 선교부 사무실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택시 운전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떠오른 생각은 “나는 바빠. 나는 피곤해. 게다가 아마 그는 복음에 흥미가 없을 거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화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내가 김불 대관장님과 가졌던 옛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멕시코시에서 쿠에나바카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해 생각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드디어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노즈, 시엠프레 하 비비도 아쿠이 엔 멕시코?” (“기사님, 기사님은 멕시코시에서만 살았습니까?”) “아니오,

저는 오악카카에서 왔습니다.”라고 그는 답했습니다.

“오악카카보다 멕시코가 살기가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곳보다 오악카카에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8명의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장남은 장차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폴리테크니컬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금년에 졸업하게 될 것이고 둘째 또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 졸업하게 되며 큰딸은 회계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띄고 이곳에 왔습니다. 기사님은 그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일종인가요?”

“아닙니다. 그 교회와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가 원하는 교회를 조직했으나 수년 후에 배도 즉 타락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후 때가 이르자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다시 그의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간략한 설명은 약 사십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몸을 시트에 기대고 적어도 내가 “입을 열었다”는데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속도를 줄이며 어깨 너머

로 넘겨다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가족에게 그것에 대해 좀더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오후 2시에 떠납니다. 그러나 기사님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도착하여 삼 분 동안만 시간을 내 주신다면 한 친구를 기사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사님 댁에 보내어 가족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차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에게 선교사 프로그램과 그것의 운영에 관해 말해 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선교부 사무실로 들어가서 허먼 벨라스케즈를 어란 콜 선교부장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친절히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콜 선교부장은 창문 밖을 내다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걸어 오고 있는 저 두 장로님들이 당신이 사는 지역을 맡아 일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허먼 벨라스케즈씨에게 선교사를 소개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다음 일요일에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후 수주 후에 나는 콜 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장로님이 선교부로 모시고 온 그 택시 기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신다면 흥미로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그와 그의 가족과 또한 그의 형제와 그 형제의 가족 그리고 그의 매형과 그 매형의 가족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이들 가족 중 열 한 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육 개월 후에, 나는 독신 성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나는 택시 기사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기술을 배우고 있는 두 아들은 침례받아 제사로 성임되었고 그의 형제와 기술을 배우고 있는 작은 아들이 침례받아 교사로 성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예언자의 권고를 진실로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디서나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축복받았던 모든 사람이 그들이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매년 단지 몇 십만 명의 새로운 회원이 아니라 수백만 명, 드디어는 수억의 회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저 자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 특별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한 편지

마리 요한슨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썼던 가장 어려운 편지였다.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조차 모르면서 나는 적절 한 어휘를 생각해 내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

나의 전 남편의 모친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지도 2 년이나 되었다. 나는 재혼한 몸으로 나의 네 자녀들은 한 번 도 만나 본 일이 없는 할머니에게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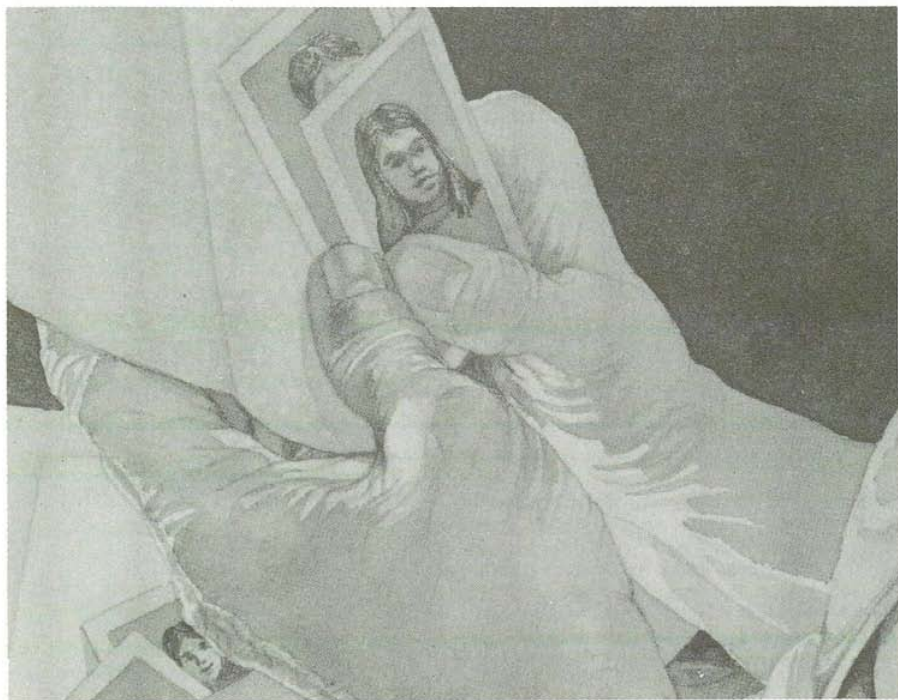
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다.

“당신이 느끼는 대로 적어요.” 남편은 나의 시도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 나를 격려하는 속삭임을 들었다. …… 그 특별한 영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 “그녀의 유일한 손자들이 살아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해.”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다. 과거의 일은 접어 두기로 하고 나는 앞으로 그녀의 사랑하는 손자들과 함께 그녀를 방문하여 가족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아이들의 학교 사진을 동봉했다.

준 할머니는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수술 뒤에 온 후유증 치료가 지연되고 있었고 그는 깊은 실의에 빠져 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생은 불행했으며 그녀가 살고자 하는 소망을 상실한 것같이 보였을 때 아무도 진심으로 놀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누구의 돌봄이나 사랑도 없이 거기에 누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시아버지인 빌이 카드와 편지가 도착되는 대로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으나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추수 감사절 며칠 전에 한 사제가 와서 마지막 의식을 집행했지만 그것도 그녀의 회복에 별다른 희망을 주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우편물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중 한 편지에 관심을 보였다. 남편이 그것을 열었을 때 어린이들의 사진이 침대 위에 쏟아졌다. 그 노부부는 즉시 그 사진을 집어 들었다. 빌 할아버지는 그 사진에 자꾸 입을 맞추었다. 아내 준은 너무 약해서 그 보물을 쳐다보고 울기만 했다.

오후 늦게 그녀는 간호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시장해요.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세요.” 살고자 하는 새로운 의욕을 갖고 준 할머니는 처음으로 침대에 서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곧 나의 편지에 답장을 해줄 만큼 건강해졌다. 그녀는 손자들에 대해 읽었을 때 너무 기

뻘했으며 과거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손자들을 다시 본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다.

우리는 그해 여름에 펜실베이니아로 차를 몰고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과 감사의 큰 선물을 서로 나누었다. 나는 나의 편지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영이 나에게 편지를 쓰도록 속삭였다는 것이다. 나는 편지를 쓸 마음이 없었는데도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낀다. \*

## 질문 상자

무작위 표본 조사

노라 칼슨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로 말미암아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물론 상자”라고 불리는 가족 게임을 고안했습니다. 그 목표는 필수 있는 한 성찬식 말씀과 찬송에서 많은 질문을 만들어 그것에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간단합니다.

1. 각 가족은 질문과 그 대답을 하나의 종이에 적는다.
2.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질문지를 상

자에 넣는다. (우리는 할머니의 푸른 버드나무 단지를 사용하였다.)

3. 교회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문제를 꺼내 가족들에게 묻는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른이 읽어 준다.)

4. 각 문제에 올바르게 대답했을 때 한 점을 준다.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연령이 어린 자녀가 대답한다.

매우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나 개회 찬송의 제목이 무엇이며 개회 기도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원이나 교사가 지지받았다면, 그가 누구이며, 그가 받은 새로운 직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으며, 성찬식 말씀에서 행해진 내용에 근거를 둔 교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성찬식에서의 우리 가족의 경건성은 놀랄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새롭게 경청하는 태도와 집중력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

다. 질문: 스미스 형제님은 우리 와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대답: 더 많은 회원(그것은 선교 사업을 주제로 한 성찬식이었다.) 15세 된 딸인 엘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회원을 위한 노년의 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식품을 비축해야 합니까?

대답: 적어도 일년치의 식품을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 장남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그와 같은 정도로 비축했어요?” 다시 재평가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엘마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답: 길을 잃었던 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간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들이 그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조용히 “아빠와 엄마가 나를 위해 행하신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에 흐른 눈물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간증했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뿌듯해졌습니다.

경건과 지식과 즐거움과 영성의 향상은 주일날 저녁에 가질 수 있는 보상이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성찬식의 정신을 다시 느끼기 위해 “물론 상자”를 매주 갖기를 기대합니다. \*

# 여성의 신권관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노번의 모임에서 교회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자녀로서 완전히 동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확신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각기 다릅니다.” (성도의 빛, “의로운 여성의 역할”, 1980년 3월호, 149, 150 페이지)

나는 우리들 각자가 이 지상에서 성취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2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때가 정해져 있음이니라.”

또한 교리와 성약 46편 11-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역할에 관해 전세의 회의에서 성스러운 약속을 했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이룩하기에 필요한 은사와 권세를 약속받았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전세에서 성실한 형제는 어떤 신권 파업에 예민된 반면에 성실한 자매에게도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언자와 사도로 지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빛, “의로운 여성의 역할”, 1980년 3월호, 150페이지) 나는 또한 이러한 지명과 역할이 남자와 여



자가 다르듯이 여자와 여자라도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닮고자 하면 어떤 모범이 될 인물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인물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질투나 자신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꼭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대가족이, 또 어떤 여성에게는 소가족이 주어졌으며, 전혀 가족이 주어지지 않는 여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는 지역 지도자, 사업가, 스테이크 부장, 감독 또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일을 지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쓰고 있으며, 다른 여성은 직접 지도자가 되어 일하는 데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그들의 남편을 돕고 그들 스스로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메리 필딩 스미스 자매와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의 임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결혼하고 가족을 가졌으며 왕국을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유행과 허영 때문에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래 전에 우리가 행하기로 성약을 맺었던 바가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단계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만큼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녀

에게 책임을 주었던 천사에게 말씀한 것같이 기꺼이 생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잠시 한 개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본부 청녀 회장의 보좌인 아메스 캡 자매는 우리 집에서 서쪽으로 몇 집 건너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메스 자매는 내가 아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강한 여성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히버는 우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위대한 힘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캡 가족은 아직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집 동쪽에는 조안 킨 자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안 또한 순수하고 아름답고 강한 여성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남편 에드는 훌륭한 능력있는 분이었으며 그도 또한 우리의 삶에 진실하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었습니다. 킨 가족은 12명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왕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아직 배우자를 갖거나 결혼을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일 왕국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나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로서 아끼는 네 명의 모범을 보인 분은 카롤린 라스무스와 마리린 아놀드와 나의 남편

의 뛰어난 비서, 랜디 그리네(우리의 생활에 대한 그녀의 공헌은 사적인 동시에 전문적이었음)와 내가 중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태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던 최근에 알게 된 간호원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와 교회에 도움을 주었던 여성의 이름을 다 기록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데스, 조안, 카롤린, 마리안, 랜디와 패트는 모두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우리들 개개인에게는 장차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의로운 것을 원하며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전념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왕국에 바치며 우리가 나눈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보다 이기적인 목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와 연구로 임해야 하며 의로운 삶을 통하여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체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데서 올 수 있는 화평과 안정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든 우리는 의로운 삶과 개인적인 제시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권세나 인간의 철학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리아호나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다른 점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차이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의 특별한 책임과 신권의 책임을 지닌 남성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자나 여자나 어떤 형태든 인권 투쟁, 인권 운동, 인권 행진을 펼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며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감명적인 글의 몇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방에서 인간의 권리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의무를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분리된 세계”, 내셔널 리뷰, 1973년 7월 7일, 838페이지)

우리가 책임에 충실할 때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의 권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 될 것입니다. 남편이 예일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남편을 도왔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이웃이 내게 피로의 기색이 완연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 제프는 4년간의 학위 과정을 3년 동안에 마치려고 하였으므로 매우 바빴습니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일하며 돈도 벌어야 했고 예일 대학 신학 연구원에서 두 시간, 암허스트 대학 신학 연구원에서 한 시간을 가르쳤으므로 매주 한 번씩 차를 몰아 편도 145킬로의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예산을 규모있게 쓰기 위해 노력하면서 두 아기와 함께 살림을 꾸려 나가고 또한 교회에서 상호 부조회 회장으로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특별한 이웃은 관심과 진정한 도움의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 왜 당

신은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던져 버리고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기도를 통해 나의 권리가 무엇이든 장기 목표를 추구하려는 나의 의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나는 제프의 학위가 오직 그의 장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을 오직 그에게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 나의 내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이제 나는 시간과 재산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 외에 많은 나의 취미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나의 궁극적인 임무와 사명에는 사랑으로 남을 도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임무나 책임이 남을 돕는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이 자주 그러한 소명을 다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세상에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을 만큼 연구하고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몇 달 전에 나는 남편과 함께 모슬렘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인을 위한 2주간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자들은 신문 편집자와 전 외교 사절, 성직자와 랍비와 대학 총장과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그 2주간에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나에게 물론 여성에 관해

## 만일

여러분의 임무나 책임이

남을 돕는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이

자주 그러한 소명을

다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세상에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을만큼

연구하고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어 보았습니다. 참석한 다른 여성도 대부분은 나처럼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일하게 나에게만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여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여기고 있는 것과 또 우리의 특권에 관한 진리를 명백히 가르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무(권리의 반대로서)의 유대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받은 계시를 생각해 봅시다. 권리나 자유는 전혀 주어지지도 않았고 규제를 벗어난 권세의 남용 속에서 권리와 자유와 권세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심오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환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통(이 경우 요셉 스미스의 고통)을 매우 의미심장한 지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성 121 : 34-37, 39, 41-42, 45-46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권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온갖 지시로서 전해지고 지지되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권의 특권은 의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여성의 특권 역시 그러합니다. 교성 121편의 34절에 유의하십시오. 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까?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교성 121 : 35)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건설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킴벌 대판장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세상의 참된 여걸 중에는 이기적이 되는 것보다는 의롭게

되는 데 관심을 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된 여걸들은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고결함에 더 가치를 두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답게 보이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답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상기하십시오.”(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151, 152페이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지상에 있는 물건에 얽매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인간의 칭찬을 탐해서는 안됩니다. 즉,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에서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이 임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에 앞으로 내닫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실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은 믿음과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신권[모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교성 121 : 36)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권능이란 말속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신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모든 여성의 권리와 권세도 동일한 약속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 즉 남자나 여자나 검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이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니이 26 : 33 참조) 우리가 계명, 곧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계명

을 지킨다면 영원한 보상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마태복음 25 : 21)

주님께서 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하시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말일성도의 남자나 여자가 여성과 신

신권의 특권은  
의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여성의 특권 역시  
그러합니다.  
교성 121편의 34절에  
유의하십시오.  
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까?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  
(교성 121 : 35)  
하기 때문입니다.

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그와 같이 열을 올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 곧 남자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두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선가, 어떤 과정에서 약속이 지켜지거나 의무가 존중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해서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들 모두는 121편에 설명된 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모범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원만한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해와 그와 같은 약속을 지니고 있으면 이 세상의 고통과 실망과 좌절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신권 대답)이며 남자나 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45절과 46절의 아름다운 선물을 다시 참조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한 분이 보이신 모범을 전해 드리고 저의 말을 마칠까 합니다. 벨린 에이치 오크스 총장(전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은 나에게 선택과 의무에 관해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요점의 영감적인 실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크스 총장은 젊은 법률학 교수로서 현재 미합중국 대법원 판사인 루이스 엠 포엘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포엘 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의 딸은 최근에 일류 법률 학교를 졸업하고 매우 성공적인 개업 변호사가 되었고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첫아기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오크스 총장이 가족 친구로서 인사차 방문했을 때 그는 이 젊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젊은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언젠가는 직장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안돼요.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했어요. 나의 고객은 구누라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의 어머니 역할은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가 간단하다고 말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얼마나 명쾌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녀가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로써가 아니라 먼저 책임을 느끼는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에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것은 나의 직업이다.” 또는 “이것은 나의 생활이다.” 라는 태도를 지녔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의무였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함으로써 그 문제와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추구할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만큼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말일성도 여성으로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강제로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사와 열망으로 그것들에 이르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고통과 혼란과 좌절 등은 선택을 강요당했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일깨워 주는 참 빛을 열성과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때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 우리의 닳을 내려야 하며 그것은 매일의 자성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

# 기도에 대한 간증

수전 태너 흄즈

좀 달랐습니다. 땅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으며 그가 목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안개가 더 자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산 위로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에 차츰 안개가 완전히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마음 속에서 일기 시작하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휘파람을 불었는데도 마치 축축한 담요처럼 그를 감싸는 암흑에 대한 공포와 외로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을 것 같은 찰나에 어머니의 “아무것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하신 어머니의 권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섯 살 된 클린트는 이슬젖은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를 도와 줄 수 있는 한 분에게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단순한 신앙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 들자 그는 눈을 뜨고 바로 근처에서 해매다가 집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소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한 작은 음성이 그 소를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트는 그 소의 꼬리를 잡고 곧 아버지가 우유를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헛간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21세의 젊은이가 된 클린트는 우리 앞에 서서 어린 시절에 배운 교훈과 경험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련이 닥치거나 불확실한 순간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교훈삼아 도움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기도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모았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 간증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모범과 그녀의 아들의 모범은 어린 우리 자녀의 마음에도 그와 똑같은 기도를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해주었습니다. \*

내가 어머니의 가르침의 힘을 더욱 감사하게 느끼게 된 것은 어떤 성찬식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귀환 선교사인 클린트 졸단이 자신의 선교 사업과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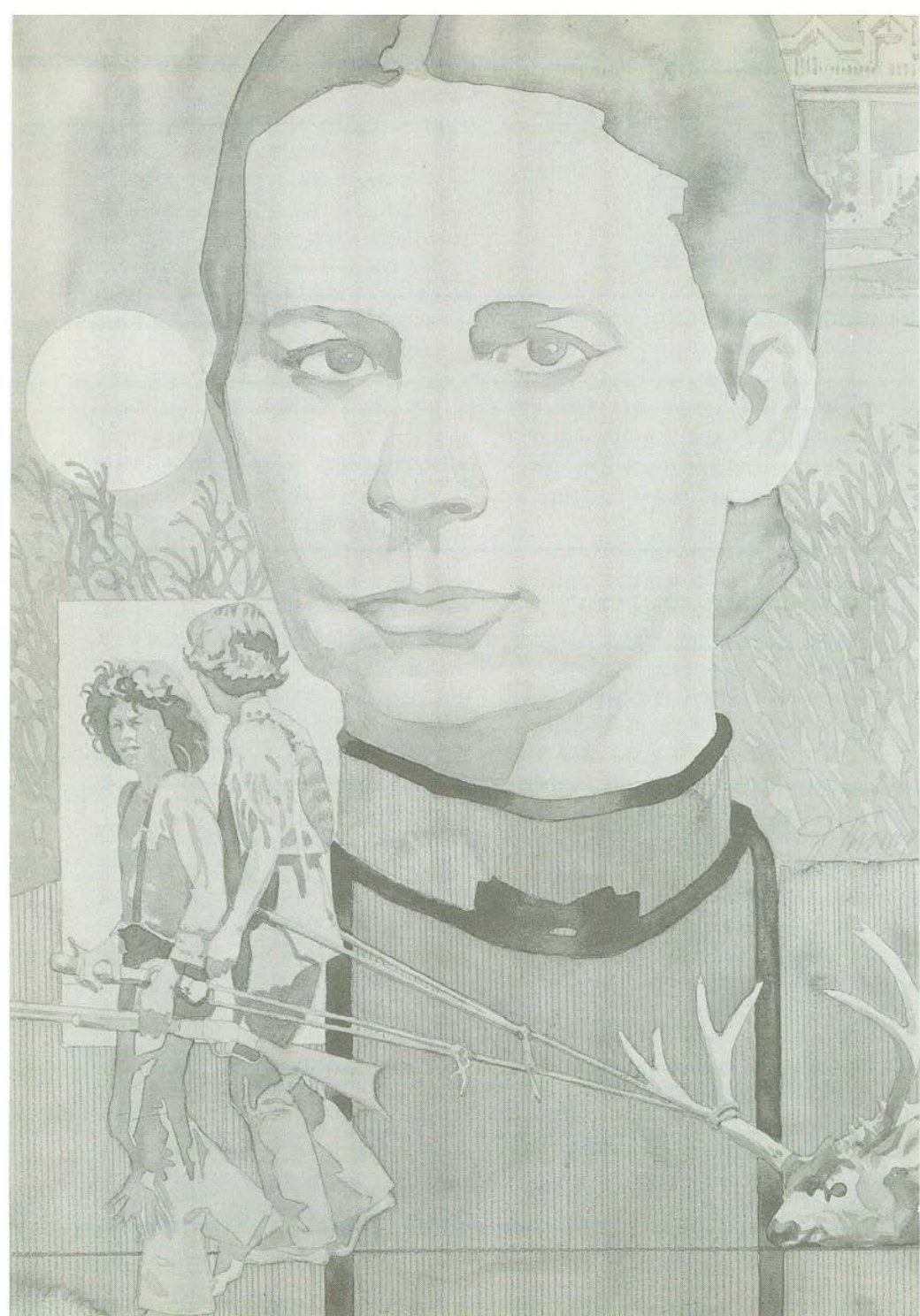
그는 말씀하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듣게 하는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만일 저의 어머니가 기도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은 하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클린트, 아무것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언제라도 혼자 있게 되거나 두려운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는 어머니의 음성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이 말씀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번째 기도의 응답에 관한 소중한 경험은 자녀에게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에 매일 아침 일찍 우유를 짜기 위하여 3.2킬로미터나 되는 목장까지 걸어가서 소를 데려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색과 오렌지색의 햇빛을 보기도 하고 키 큰 해바라기 앞에서 반짝이는 이슬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한 이 특별한 아침은





## 캐더린의 신앙

클리포드 제이 및 마사 롬니 스트래튼

때는 1888년 겨울이었고 장소는 멕시코의 콜로니아 화레이스. 롬니 일가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캐더린의 남편인 마일즈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집을 떠난 지 여러 달이 지난 뒤였고 캐더린이 조심스럽게 절약하며 생활했음에도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었다. 그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궁리한 후에 12세 된 아들 토머스과 14세 된 아들 조지에게 사냥을 시키기로 했다. 이 두 소년은 모두 이전에 총을 쏘아 본 적도 없었으며 또한 거치른 산속에 그들만 보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으나 굶어 죽는다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었다. 그 두 소년은 가족의 44구경 윈체스터 장총을 들고 열의를 앞세워 스프링 크리크로 올라갔다.

그들은 15킬로미터 가량 시냇물을 따라가다가 약 70미터 전방에 커다란 숫 사슴이 옆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조지는 흥분하여 총을 겨냥하고 쏘았다. 그 사슴은 총성에 어리둥절해서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다. 두번째로 쏘았을 때 조지는 사슴의 복부를 겨냥했으나 두 눈 사이를 정

확하게 명중했다.

그들은 흥분이 가라앉자 칼도 없고 그 사슴을 집으로 운반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지는 집으로 칼을 가지러 가고 토마스는 사슴을 지켰는데 맨발이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이 얼지 않도록 계속해서 뛰고 걸어야 했다.

조지가 10세와 11세된 맨발의 두 동생을 데리고 돌아올 때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슴의 자을 뜰 만큼 힘이 세지 못했기 때문에 6킬로미터 떨어진 집까지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금 가서 쉬고 또 조금 가서 쉬고 했다. 좀 있다가 캐더린까지 합세했으나 여전히 전진하는 속도는 느렸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이웃에 사는 헬라맨 플랫폼씨가 짐 노새를 끌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그는 총성을 듣고 도와 주러 온 것이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평생에 제일 맛있는 사슴 고기를 먹었다.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소중한 추억으로 삼고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주었으며 그 손자 손녀 중에는 먼 훗날

스펜서 더블류 킴볼과 결혼하게 될 카밀라 아이링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야기보다 캐더린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다. 캐더린은 개척자인 부모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한 지 16개월이 지난 1855년 1월 7일에 태어났으며 그녀가 7세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은 유타주 남쪽의 세인트 조지를 개척하는 일에 협조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캐더린은 유타주 남쪽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성탄절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양말 속에서 어머니가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서 가져온 사탕과 건포도와 마른 사과를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13개의 인형을 나무로 깎아 주셨고 그림을 잘 그리는 이웃 사람이 머리카락과 얼굴을 그려 주었다. 그 성탄절에는 캐더린과 12명의 다른 여자 아이들이 모두 인형을 갖게 되었다.

캐더린은 십구 세가 되었을 때 유타주 남쪽의 개척민 가운데 한 사람인 솔트레이크시티의 엔다우먼트 하우스에 있는 마일즈 파크 롬니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장미빛 뺨과 갈색 눈에, 조용한 성격을 가졌으며, 머리를 매지 않았을 때는 칠흑의 머리가 허리까지 흘러내렸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캐더린과 마일즈는 아홉 자녀를 낳았다.

캐더린의 신앙은 매우 강했으며 그 강한 신앙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한번은 마일즈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들의 세째 아이인 세 살 된 주니어스가 심한 귀병으로 고생을 하였으며 그때 그녀는 그가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스테이크 축복사의 축복을 받게 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을 담요로 싸서 축복사에게 데리고 갔다. 축복사는 축복하면서 만일 캐더린의 신앙이 충분히 강하다면 주니어스가 더 이상 컷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약속했다. 그가 말씀하는 동안에 주니어스가 울음을 그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후에 그는 여섯 자녀를 두었고 삼십 세가 되기 전에 멕시코의 화레이스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또 한번은 한 아들이 마차에서 떨어졌고 한쪽 마차 바퀴의 강철 테두리가 그의 머리를 스쳐 귀가 잘려 나갔다. 캐더린은 그의 귀를 얼른 제자리에 갖다 붙이고 양말로 싸맸다. 그 귀가 완전히 나아서 성인이 된 후에는 어느 귀가 다쳤던 귀인지 아무도 몰랐다.

1881년에 롬니 가족은 당시에 매우 거처 큰 개척지이며 특히 말일성도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아리조나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들이 도착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교회 회원인 베이던 크램테니가 두 무리의 난폭한 집단이 총격전을 벌이는 것을 말리다가 총에 맞았다.

마일즈는 그의 신문에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했으므로 롬니 일가는 특별히 혹심한 박해를 받았다. 한번은 두 명의 폭한이 마일즈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 어린 자녀들이 도움을 청하러 십리 이상을 걸어가게 했다. 또 한번은 아리조나의 세인트존즈에서 온 악당이 마일즈를 죽이거나 잡아오는 사람에게 수천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또 한번은 폭

한번은  
두 명의 폭한이  
마일즈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  
어린 자녀들이  
도움을 청하려  
십리 이상을  
걸어가게 했다.

도들이 집에 총격을 가해서 캐더린이 자녀를 벽과 침대 사이에 숨겨야 하기도 했다.

결국 마일즈는 브리감 영에게 이런 형편을 보고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로 갔다. 그리하여 몇몇 말일성도 가정이 추가로 아리조나의 세인트존즈로 갔으므로 물론과 물론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균형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도 이 가족에 대한 박해가 계속 되었으므로 마침내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테일러 장로는 마일즈에게 멕시코로 가도록 권고했다. 마일즈가 멕시코에서 그들의 집을 만드는 동안에 캐더린과 자녀는 유타주의 세인트조지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년 동안 그녀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박해자들을 피하여 그녀의 부모 집에 피난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을 만나곤 했다.

멕시코까지의 기차 여행이 가능했으나 몇 아이가 도중에 성홍열에 걸렸으며 그중의 클라우드는 멕시코의 콜로니아 화레이스에 도착한 직후에 폐렴으로 죽었다.

그들이 멕시코에서 처음 갖게 된 집은 강둑을 파서 만든 굴이었다. 그래서 캐더린은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야생화를 꺾어 꽃바구니를 짜는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를 달랐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노래하고 소풍을 가고 파티를 갖고 과자를 만들고 춤춘 밤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캐더린은 매우 훌륭한 소프라노 음을 갖고 있었다. 이웃과 이야기하고 방문하는 것도 가족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마일즈는 1902년에 심장병을 앓았다. 그때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으나 2년 뒤, 두번째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딸인 롤라는 그 다음 성탄절에 그들의 양말에는 선물이 들어 있었으나 소나무 장식은 만들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심부름을 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므로 나의 실망과 자기 연민에 빠진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심부름은 기차길을 건너서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하는 늙은 부부에게 가는 일이며 더군다나 다리를 저는 남동생은

태우고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던 수레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담요 한 장과 버개 한 개, 우리의 성탄절 만찬의 일부를 빼어 내서 칠면조, 감자, 채소, 도너츠, 버터 등을 그 수레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서 문을 두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만 하면 된단다. 그리고는 빨리 집에 와서 놀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작은 흠집으로서 대평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키가 작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에게 키스해 주시면서 ‘너야말로 작은 성탄절 찬사로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계단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부리기 위하여 수레를 안으로 끌어들었습니다. 긴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벽난로의 작은 불꽃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것 보세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얼 보내 주셨는지 아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물건을 보낸 분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므로 나는 그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아침 식사를 하다가 남은 것이 그때까지 식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초라한 음식을 가리키면서 ‘만일 네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찬

으로 저것밖에 먹을 수 없었을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번 더 키스를 받고 그 집을 떠나면서 나의 온 몸에 즐거움과 평화로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성탄절에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나는 집에 올 때까지 강충강충 뛰었으며 그날처럼 즐거운 성탄절 만찬 식사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캐더린은 멕시코 혁명 기간 중에 단 십오분간의 경고를 받고 집을 떠났다. 그녀는 은식기와 접시를 땅에 묻고 오븐에 케익이 구어지고, 난로에서 닭이 튀겨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캐더린은 침구 한 개와 필수품이 든 가방 한 개만 들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네번째로 쫓겨나는 집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들이 마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두 딸이 마차의 뒷칸에서 일어서서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찬송가 88장)를 부르기 시작했다.

룰라는 자기 어머니가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무덤을 보고 다시 자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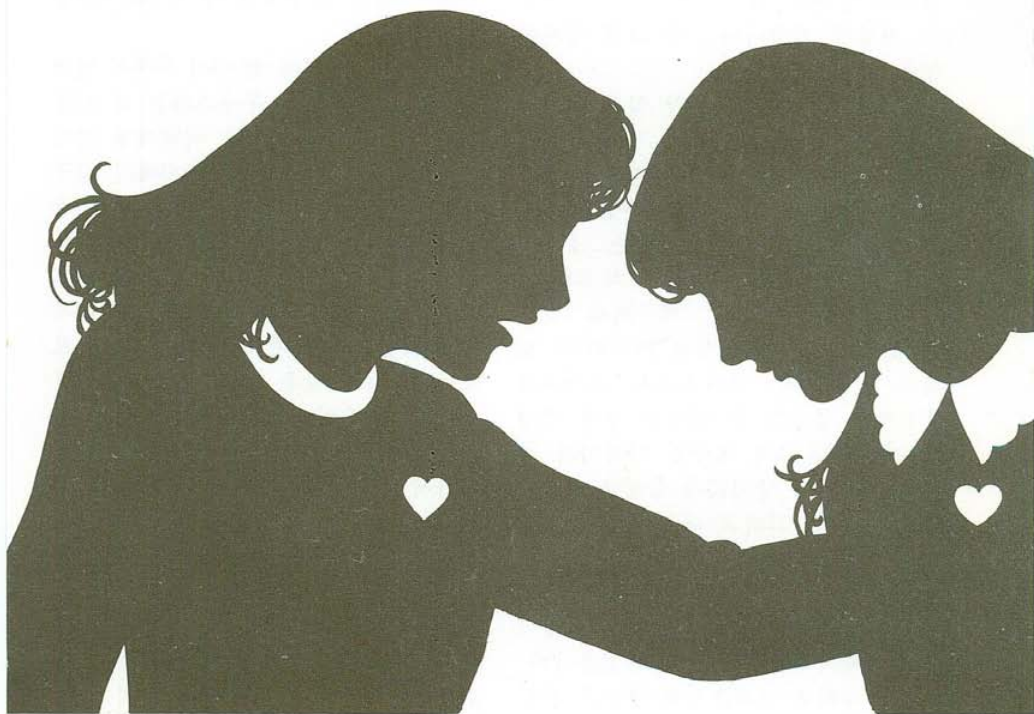
캐더린은 병세가 극히 악화될 때까지 유타주의 세인트조지 신전에서 일했다. 그녀는 모을 수 있는 자녀를 다 불러 모으고는 자기 옆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자신이 병고침을 받든지 장막 저편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1918년 1월 6일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

내가 14세 되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초에 친한 친구 한 명이 백혈병으로 막내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나는 그 친구가 버스 정거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있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슬픔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부끄럽이 앞섰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자 그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캐티가 죽은 후에 너나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것

##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앤 에드워즈 캐넌



을 늘 이상하게 생각했어.”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슬픔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런 변화, 질병, 죽음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친구가 그런 문제에 부딪혀 이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친구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무력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고 자문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무력감으로 인하여 내가 했던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그런 문제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전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써 고통당하는 사람을 등한시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써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하셨는지 회고해 봅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한복음 11:35)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나 그의 친구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하여 슬퍼하사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어 나사로에게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명하시어 그들의 슬픔을 덜어 주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

으로 기적을 베풀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돌보는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그 친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내게 와서 ‘참 안됐어.’라고 말했다면 우리 서로가 좀더 위안을 받고 서로에 대해서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좀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거야.” 불행한 사태가 의사 소통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애도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 슬픔에 잠긴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우그라는 내 친구는 13세 때 교통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는 양친이 살아계신 친구들이 좋은 의미에서 말한다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네 심정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참고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며 그 결과 좋은 의도로 한 그들의 말은 냉담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단순하게 “참 안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우그는 자기에게 “그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단순한 애도의 말을 듣고 그들의 염려하는 마음과 애도의 뜻을 안 후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가 직

접 이야기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말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려 줘.”라고 말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간을 빼앗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부탁하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하여 부탁을 받지 않고도 친구를 위하여 실제로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나는 다이아나라는 소녀를 알고 있는데 그녀는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위험했던 시기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한 훌륭한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해준 일에 대하여 늘 감사할 것입니다. 다이아나는 17세가 되었을 때 우울증이 극에 달해 고질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우울증이 극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레이첼은 이것을 알고 은밀한 가운데 언제든지 다이아나에게 자기가 필요할 때 그녀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이아나는 자기가 완전히 건강해지고 다시 활동화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전화 연락, 긴 산책, 정구 경기, 자신의 질병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긴 대화 등이 매우 훌륭한 도움의 방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겪는 비극적인 사태가 흔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피로운 느낌은 언제나 금방 해결되지는 않으며 자신의 슬픔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

요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그에게 더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탠이라는 소년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에 그의 남동생이 사고를 당하여 하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는 그 두 소년의 친구들과 와드 회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방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제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탠과 그의 동생과 가족은 그 비극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몇 주일은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새롭고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 못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친구가 계속해서 도와 주었다면 정말로 고마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해도 좋은 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즉 참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변하는 염려로써, 그 친구가 그런 고통을 잘 처리하게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보이며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



# 그들을 찾아라

로이든 지 테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나의 증조모이신 어슐러 와이즈 데릭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가족 기록에 의하면 할머니는 브리스톨에서 12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마을인 잉글랜드의 소머세트 케인삼에서 1779년경에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자녀는 쌍둥이인 엘리자벳과 재커라이어였습니다. 엘리자벳은 태어난 직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커라이어는 14세가 되었을 때 브리스톨 철공소에서 직공으로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견습 기간을 끝내고 주물공이 되었습니다.

이 해는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는 두번째 견습 생활을 시작하면서 메리 세퍼드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직후에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음이 가까왔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침대 옆으로 불러 현재 그가 알고 있는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므로 아무 교회 조직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니는 선교사들이 회당과 길 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새로운 예언자에 관하여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거든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일 것이므로 거기에 가입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슐러 와이즈 데릭 할머니는 바로 그해 1836년에 돌아가셨으며 그것은 히버시 킴볼과 그의 동반자인 선교사가 영국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320킬로미터 북쪽에 있는 리버풀에 상륙하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브리스톨에서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신성한 곳으로부터 그런 지식을 받을 만큼 그 할머니는 매우 영적인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침례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침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증조모가 어떻게 되셨는가를 알려고 경전을 탐구해 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전파”(이사야 61:1)하러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교성 138편)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교성 138:12)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교성 138:18)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포로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부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포로였습니다.

어슐러 할머니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도 한참 후에 태어났지만 이것은 그 뒤의 사람들을 위한 원형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울슨 아저씨가 돌아오실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대단한 열의를 갖고 계셨으며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느낌을 심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울손 아저씨가 우리 집 뒷문으로 오시리라는 생각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행상인이 뒷문으로 오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치맛 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저 사람이 울손 아저씨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항상 “아니야”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어머니는 어머니의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울손 아저씨는 1881년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14개월 만에 그의 부친이 돌아가셨으므로 그 중요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지도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만 17세가 되었을 때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호수 해변에서 개최되는 무도회, 솔트에어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초저녁에 벌써 술에 만취되었고 결국에는 지역 형무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부모와 가족들이 형무소로 달려가 자기 아들들의 석방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얼싸안고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책임감있는 시민이 되도록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울손 아저씨는 우리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는 이 지방으로 돌아오면 안된다는 명령과 함께 북서쪽으로 가는 차편의 편도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할머니가 밤에 자기 방에서 흐느껴 우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곁에 가면 할머니는 “떠들이 우리 아이가 오늘 밤에는 어디에 있을까”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울손 아저씨는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기에 꽤 어려운 분위기인 북서부의 벌목장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매우 늙었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아마 영의 세계에 가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울손 아저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늘 경전을 상고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이사야 24 : 22) 구세주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교성 138 : 30)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형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나의 좋은 친구인 조셉 에스 벨슨은

---

“친애하는 친구 조셉이여,  
 꼭 그들을  
 찾아서  
 우리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고귀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합니다.”

몇 달 전 8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네 번이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80세에 마지막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경전을 상고한 결과 여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문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교성 138 : 57)

나는 증조모이신 어슐러 와이즈 데릭 할머니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우 특별한 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할머니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 (교성 138 : 12)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그들의 구속” (교성 138 : 16) 즉 구원의 의식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올슨 아저씨를 흠모하는 마음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했습니

다. 나는 그에게 영원한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표를 사 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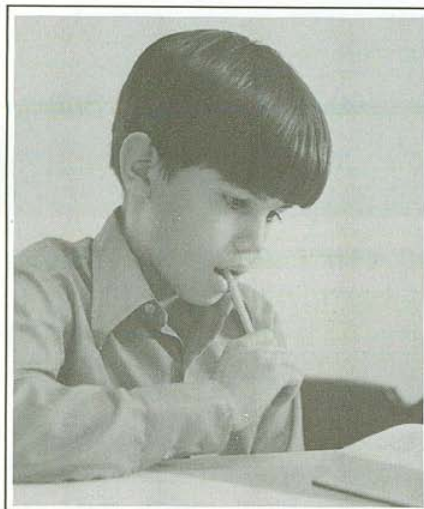
나는 나의 좋은 친구인 조 벨슨이 나의 조모님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훌륭한 진리를 가르쳐 우리가 그녀를 위하여 수행한 구원의 의식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인 조 벨슨이 올슨 아저씨를 찾아서 그의 부친께서 살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가르쳤을 복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올슨 아저씨가 그를 도와 주었을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편도표만 없었다면 들었을 복음 진리를 지금 들을 기회를 가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조셉이여, 꼭 그들을 찾아서 우리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고귀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육신을 입고 표현할 수 있는 고마움 이상의 고마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인생을 계획하는 것



여러분은 여  
말일성  
현재  
혼린  
가득 찬 시대

이  
홀륭  
가득 찬  
분명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음 10년 동안은 기쁨과 행복 안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쉴 곳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번째 10년에 들어서서 간섭이 완화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품성을 발달시키며 점점 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숙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

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좁은 길을 열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발전을 중단시킬 음침한 막다른 길로 여러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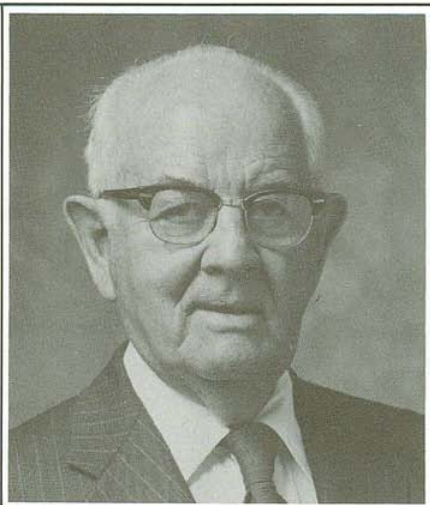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도록 다른 사람들이 도와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특권을 부여하지만 그릇된 결정으로 야기되는 고통이나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인생 행로에 발을 디디면 방향 전환은 어렵게 되며 특히 그 길이 내리막 길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게 될 경우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 관장이

## 에 관하여 말씀하심

에 관찰하는  
대로서  
본이  
경으로  
그 있지만  
기  
는  
위로  
하는 것을  
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발전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만일 그 인생이 생산적이고 가치있고 충만하고 풍부한 것이 못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후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으나 책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통의 것이나 혹은 실패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조한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농작물의 성장 시기 끝까지 물이 남아서 그 계절 내내 물을 대 주고, 수많은 말라 붙은 수로와 수십만 평에 달하는 메마른 땅에 물을 분배하여 모든 농작물에 물을 줄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배웠으며 우리는 늘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이미 나는 건조한 지방에서는 이삼주 동안만 물을 주지 않으면 수목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늙은 노새에 마구(물통을 얹은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를 채우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한 구간 떨어진 유니온 커널이라고 하는 물가까지 노새를 끌고 갔습니다. 내가 양동이로 작은 개울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물통에 채우면 그 말이 다시 그것을 끌고 가서 나는 장미, 제비꽃 및 기타 화초와 작은 관목과 울타리 나무와 새로 심은 나무에 그 귀한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물은 액체 황금 같았으므로 나의 생애에 있어서 저수지는 매우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종류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물 저장소와 식품 저장소도 필요하며, 7년 동안의 기근을 견디기 위하여 7년 동안의 풍년작을 저장하도록 요셉이 애급 땅에 세운 창고 같은 저장소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저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두려움의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의 저장소와 질병을 유발하는 흔히 있는 오염에 대처하게 해주는 육체적인 힘의 저장소와 정력의 저장소와 신앙의 저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굳건하고 강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타락해가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힘을 빼앗고 영적인 활력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이 세상적인 세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우리에게서 신앙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조바심나는 십대의 시기와 그후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고 우리가 지루하고 어렵고 무서운 순간과 실망과 환멸을 이겨 내고 곤경과 가난과 당황과 좌절의 시기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저장소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리하게 관찰하는 말일성도 세대로서 현재 여러분이 혼란과 곤경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는 훌륭한 기회로 가득 찬

---

“지혜로우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아들일지어다.”

(요한 132 : 24)

---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내자로서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이로써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접하게 될 사건과 상황을 비추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이 경전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치 지도자로부터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서 세상에 화평이 없을 지라도, 영혼에 내재하는 고요함을 깨닫게 하는 개인적인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현재 인생의 좁은 길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로 부터 전해지는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설명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같은 것에 대하여 거듭거듭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그 곧고 좁은 길 양쪽에 있는 절벽이 조금이라

도 변하거나 덜 위험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의 험준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다시 인도해 줄 새롭거나 더 영광스러운 길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만 자주 똑같은 것에 관하여 격려해 주어야 하며 반복해서 경고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 진리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계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교성 93 : 36) 또한 “깨끗한 지식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교성 121 : 41)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교성 131 : 6) 이 부분이 크게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성급히 결정을 내리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떠나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는 가운데 지침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따르고는 결국은 실망에 이르고 맙니다.

어떤 지식에서 권세를 발견하며, 지식으로부터 어떤 권세가 옵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분석해 봅시다. 올바른 순서대로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인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프로그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옵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올바른 순서를 제시하시고 질서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 33)

또한 그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우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아들일지이다.” (교성 132 : 24)

이 지상 생활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가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두고 우리의 영이 거할 영원한 장막이 될 육체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육신을 이기며 육신이 정신에게 복종하게 하며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게 자신을 다스리며 모든 필요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인생을 사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세상적인 것과 그 모든 요소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짧은 인생이 주어져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지상 생활과 영원을 통하여 이 세상과 그 위에 있는 것에 관하여 배우고, 우리의 필연의 길인 하나님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고 무식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수십년 동안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승영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성과 결국 완전한 과학의 지식이 요구되는 영원한 증식이 수반되는 여러 세상의 창조를 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는 많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몇 십년밖에 시간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이미 약 19세기 동안 세상적인 것 또는 지구의 지질학과 지상의 창조물에 관한 동물학, 생리학, 심리학에 관하여 배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복음에 관하여 배우고 의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중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소위 그 무식하다고 하는 승영의 상속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고도로 훈련된 과학자는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방탕하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을 두고도 그러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영혼을 구원하거나 해의 왕국의 문을 열거나 세상을 창조하거나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으며 다만 질서를 알고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며 모든 지식을 자신의 도구가 되어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뮤추얼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녀의 접근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처했던 분위기였을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경전을 읽는 것에 관하여 강한 권고가 되는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일시 중단하고 약 천 명 가량 되는 이 뒤섞인 군중에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14세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질책하는 죄의식에 싸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만화라든지 가벼운 서적 등 많은 책을 읽었으나 내 마음은 나를 이렇게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너 스펜서 킴블은 그 거룩한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 왜 그랬지?” 나는 그 거룩한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나쁜인가 하고 그 강당에서 내 앞과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약 천 명 가운데 약 오륙 명이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의자에 폭 파묻혀 앉았습니다. 나는 나 말고도 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나 자신을 깊이 비난

---

“나는 읽겠다,  
읽겠다,  
읽겠다.”

---



하는 생각으로 꼭 차 있었습니다. 나는 쪽 주저 앉은 자세에서 아무도 비난하려 하지 않았고 다만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만 힐책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이 더 들리지도 않았습니니다. 그 말씀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윽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나는 커다란 두 쪽 출구문을 빠져 나와 예배당에서 동쪽으로 달려가면서 이를 악 물며 “나는 읽겠다, 읽겠다, 읽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뒷문으로 해서 석탄 기를 등잔을 둔 부엌 선반으로 가 기름이 가득 들어 있고 새로 심지를 해 넣은 것을 골라 들고 내 다락방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성경을 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이브와 에녹과 노아와 노아의 홍수를 거쳐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에는 더 어려운 부분, 즉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수나 보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한 뺏도 돌려 대며”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옷까지도”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39-41 참조) 여러분은 친구를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원수와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지로 그들

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43, 44 참조) 이것이 완전히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도적질이나 강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자기 합리화가 빛나는 부정직, 즉 실제보다 좋게 보이는 보고, 시간이나 돈이나 노동을 속이는 일, 그 밖에도 조금이나마 부정직하거나 의심스러운 일에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을 숭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고 좁은 길입니다.

이제 한 가지 권고해도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수양을 쌓아 똑같은 유혹에 다시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함으로써 또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단 한번만 결정할 필요가 있을 따름입니다.

유혹에 관련하여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혹이 닥칠 때마다 고민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어하게 될 적극적인 것, 예를 들면 선교 사업을 한다면, 신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도 한 번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에 관련된 다른 것은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려할 때마다 위험하며 모호하게 얼버무리려 할 때 잘못이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은 말일성도가 행해야 하고 어떤 일은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가는 빨리 결정할수록 여러분에

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와 커피와 담배 등에 관한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주 주일 학교 시간과 초등학교 시간에 다른 소년들과 함께 힘차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건강하고 어여쁜 데저렛 어린이들  
주님 주신 지혜 말씀 가지고,  
홍차, 커피, 담배, 술, 금하고  
생활하여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네. (다 함께 노래를 B-24  
“사랑스런 데저렛” 2절)

우리는 반복해서 이 노래를 불러 마침내 그 가사가 나의 어휘의 일부로 자리잡고 내 노래의 주제가 되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 내 일생 계획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때때로 훌륭한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노래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그때마다 나도 예언자들이 가르쳐 준 이 금지된 것을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확고 부동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까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937년에 나는 아내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어느 훌륭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로터리 클럽 대회 연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고 넓은 연회실에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웨이터들이 식탁 주위로 오가고 있었으며 어느 곳이나 풍성한 은식기와 비단 내프킨과 훌륭한 음식 접시 옆에는 술이 몇 잔씩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쩍 유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마셔 보거나 적어도 맛이라도 볼

까? 그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유혹이었습니다. 마실까 말까?

그러다가 나는 소년 시절에 절대로 이 금지된 것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1세기의 3분의 1을 굳건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기록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 고귀한 장자권을 소유한 젊은이여러분,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엘마서 41:10)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비참함은 홀로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행복한 체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생활 방식으로 끌어들이려 할지 모르지만 행복한 죄인은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사람들의 불만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족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성공적이고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짧은 순간에는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죄는 깊은 공허감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공허한 것을 메꾸기 위하여 똑같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면 그 안에는 죄와 범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으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의 족장들과 선지자가 압박과 유혹과 박해 속에서 충실했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젊은이들의 결심이 더 강해 집니다. 모든 경전에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장점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보상

---

“죄란 결코 행복한 것 아닌 것”

(앨마서 41 : 10)

---

과 처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읽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눈이 먼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 : 39)

그가 바로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생애에서 모든 선한 요소와 우리 생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성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경전 어디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실족시켰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구에서든지 그가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이웃, 친구, 친지에게 진실하지 않았노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충실하셨습니까? 그는 참되셨습니까? 선하고 가치있는 것으로서 그가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묻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며 그가 남편에게, 모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든 아내에게, 소녀에게, 모든 소녀에게, 소년에게, 모든 소년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행로를 계획함에 있어 한 가지 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바로 이 세대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기심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 가운데 하나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여러분이 젊고 덜 이기적이 되고 좀더 희생적이 되기 쉬운 시기인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올 나날과 영원을 두고 여러분의 위대한 생애에 중요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려고 하는 품성을 바꿀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아내, 훨씬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어머니, 더 나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이기심 정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구세주의 모범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갖고 계셨던 불사불멸의 은사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입게 해줄 일을 강제당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의 행하심은 희생의 행위의 극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니파이삼서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이 미대륙을 방문한 것과 어린 이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두 번이나 우시고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니파이삼서 17 : 20)라고 말씀하신 것에 관한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 등과 같은 올바른 대업,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대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칠 때에만 오게 됩니다. 쾌락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참된 기쁨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의 왕국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표준을 확고 부동하게 세울 시간이며 여러분은 일생 동안 그 표준을 고수해야 합니다.

어네스트 리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 난 사람들의 편이다. 그들은 일종의 억누를 수 없는 충동과 운명의 명령에 의하여 영광스럽게 된다.”(예수의 생애)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이전의 같은 연령의 말일성도 세대들보다 훨씬 더 경전을 잘 알게 될 자라나는 말일성도 세대로 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기꺼이 선교 사업(정식으로 임명받은 복음 선교사로 일하기 전과 후 모두)을 행할 자라나는 젊은 말일성도 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세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세대는 자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의 선조보다 훨씬 더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동시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규모로 자기 마음을 자기 조상에게 돌리는 젊은 말일성도 세대로 봅니다. 여러분은 계보를 탐구하고 신전에 가는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키울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와 조부모가 여러분 연령에 있을 때 이런 면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관심의 정도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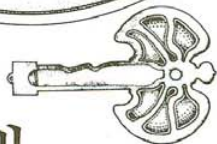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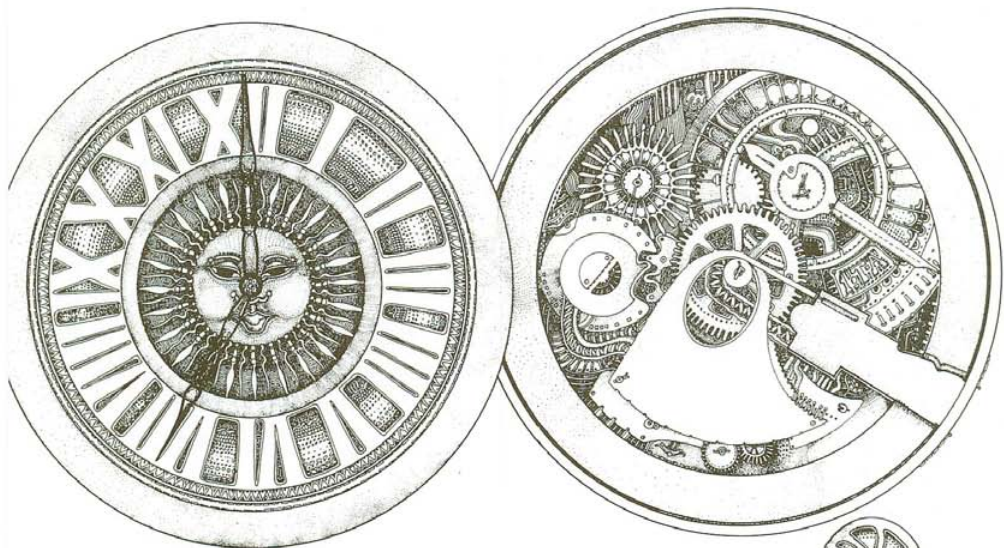
나는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청남 청년 프로그램과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와 초등학교와 신권 정원회에서 경험하여 얻은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말일성도 세대로 봅니다. 이런 지도자야말로 사려깊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면에서 봉사하게 될 높은 품격과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 젊은 말일성도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과 품격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도 전할 것입니다.

나는 젊은 말일성도 여러분이 이전 세대가 여러분 연령 때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간증을 지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의 왕국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영향력이 죽음에 의하여 침묵을 지키게 될지라도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온 충실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영광과 발전은 당당한 권세 가운데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



너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알리지 아니하려고 자기 재능을 숨겨 두지 말라.  
 교리와 성약 60 : 13



## 친구가 친구에게

어린 시절은 우리 주변의 세상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발견하는, 인생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기간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접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대한 준비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시기입니다.

구세주가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모든 소년이 합당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부름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소년 소녀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나 신권 지도자들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하고 줄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대답은 항상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린이로서 현재 여러분의 행동이 습관이 되며 만일 현재 여러분의 행동이 훌륭하다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현재 행동이 나쁘다면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대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습관이 모여서 성격을 결정하게 되며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좋은 습관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리와 성약 60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자명종이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패종 시계가 제때에 울리지 않거나 전혀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학교에 못가거나 버스를 놓치거나 모임에 못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명종은 우리의 의무, 즉 지금이 행동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신의 시간을 좀더 잘 관리하게 해주며 특히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해주는 자성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종 시계는 태엽 때문에 작동합니다. 패종이 울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태엽이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패종이 울리기 전에 태엽을 감을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태엽을 감는 일을 잊으면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패종이 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기도하는 것을 패종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태엽을 감지 않으면 패종 시계가 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내 시계가 시간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라는 것도 일깨워 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계는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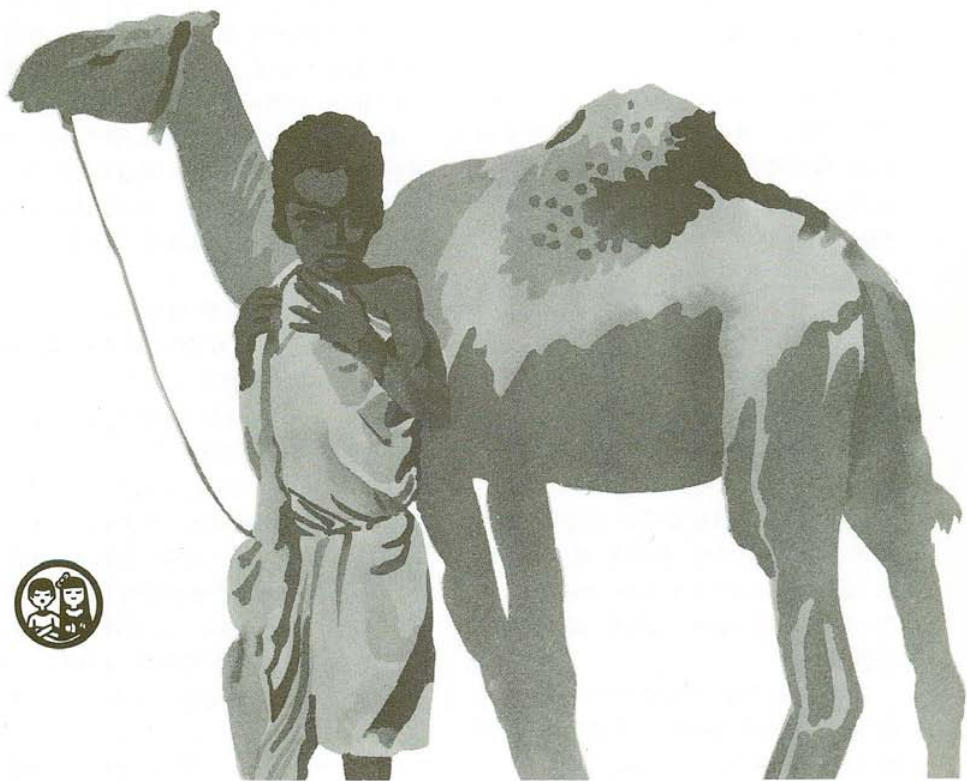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의 시간입니다. \*  
다.

하  
문은 거대한 우산처럼 펼쳐서 뜨  
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를 가려 주는  
외딴 아카시아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 집이 된 황량한 소말리  
아의 유랑민 정착촌을 건너다 보았다.  
그는 저 둥근 움막을 내가 소말리아의

모가디시오에서 늘 보던 당나귀가 시장  
으로 운반하는 풀더미하고 아주 비슷하  
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먼 곳  
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 아빠는 무얼  
하실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빠와  
함께 집에 앉아서 바다의 미풍과 엄마가

## 소말리아의 낙타와 수업

매리 게이먼



만들어 주는 맛있는 바리이스 이요 마라크(고기 스투우를 얹은 쌀밥)를 만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은 살기 좋을 만큼 크거든. 여기에서는 아칼(움막)에 들어가려면 몸을 꾸부려야 한다 말이야. 이 움막은 그저 우리 몇 사람이 자면 딱 맞을 정도의 크기밖에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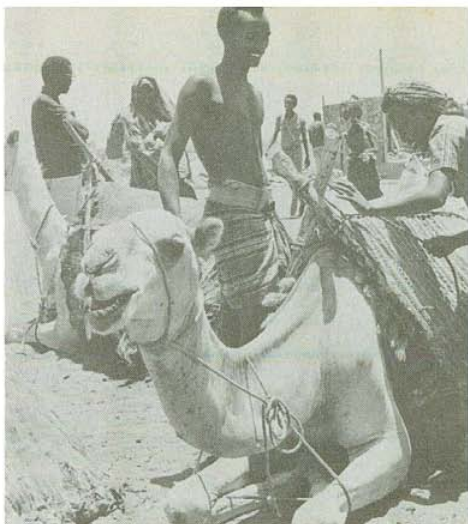
대지는 어느 쪽으로 보나 지평선까지 뻗어서 아미나가 나무 껍질로 푹이 좁은 키를 짤 때 본 것처럼 평평했다. 근처에는 키 작은 관목이 있어서 그 주변에는 아기 병아리가 어미 닭 옆에 모이듯이 염소가 모여 있었다. 그는 저 멀리 이 정착촌 소속의 수많은 낙타떼를 볼 수 있었다.

하룬이 2천리 남쪽에 있는 자기 집에 관하여 생각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조용했다. 그러다가 그는 모하메드 시야드 바레 대통령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학생들을 문맹 퇴치 운동에 참가하도록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하다아드 타카안 바, 하다아단 아쿤 바로. (아는 것은 가르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하룬은 유랑민에게 가르칠 것이 많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소말리아 백성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유랑민들에게 소말리아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했다.

1972년 10월 21일까지는 소말리아어는 말하는 것만 허락될 뿐 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집권 3년이 된 혁명 정부가 이 말의 기록을 허락한다고 공포했다.

아직도 하룬은 소말리아어를 쓰고 읽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읽기에는 항상 외국어가 포함되었다. 그는



낙타에 짐 싣는 것을 배우는 도시 소년

자기 집에서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했다. 읽고 쓰는 것을 모두 프랑스어로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영어로 된 서적이나 잡지는 없었다.

모슬렘의 성서인 코란을 공부하려 학교에 가기 시작했을 때 하룬의 나이는 불과 4세밖에 안되었다. 그는 급우들과 함께 아랍어를 암송했으나 그 뜻은 이해가 안갔다.

그는 세살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어로 “이것은 책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면 30명의 음성이 “이것은 책입니다.” 하고 따라 읽었다.

과거에 학교에 다닌 소말리아 사람은 모두 외국어를 배워야 했으나 모국어 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울 기회는 없었다. 백성 가운데 5퍼센트만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소말리아어를 쓰려고 노력했으나 1972년 이전에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룬은 자기들의 언어가 영어를 배울



백성 가운데  
5퍼센트만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소말리아어를 쓰려고 노력했으나  
1972년 이전에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알파벳으로 표기한다고 발표한 그날의 흥분과 기쁨이 생각났다.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비행기가 전 도시로 다니면서 전단을 뿌렸다.

사람들은 즉시 소말리아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3개월 후에 정부 관서에서 서기로 일하는 하룬의 부친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음 주에 내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소말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바로 그 주에 하룬과 그의 세 친구가 보도 옆의 카페에서 향기 좋은 음료수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때 자마가 처음으로 발간된 소말리아어 신문을 흔들면서 달려왔다.

그는 “이 신문 좀 봐!”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랑스럽게 “크시디그타 옥투바(옥토버스타)”라는 이름을 읽었다.

곧 다섯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보면서 인쇄되어서 낯설게 보이는 귀에 익은 말을 읽기 시작했다.

모가디슈 라디오 방송에서는 매일 문

맹 퇴치를 위한 어학 강좌가 있었다.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기를 배우고 있었다. 도시 전체에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1974년 8월에 미개간지의 유랑민에게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되었다. 기술 학교와 졸업반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1년 동안 문을 닫았다. 14세 이상의 학생들은 유랑민에게 소말리아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미개간지로 보내졌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하룬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보급품을 배급하는 정부 관리 앞에 섰다. 그는 “나바드 미야아.”라고 신고했다.

“하아 와아 나바드 위야”라는 활기찬 대답을 들었다. “하룬,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 있다! 미개간지의 추운 밤에 사용할 담요 한 장, 지우개, 연필, 펜을 넣는 통도 되는 접는 흑판 한 개, 교재 한 권, 반 명부 한 권. 나바드 겐리오. 라아 하 쿠 바라카메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히 갈지어다.)”

하룬은 상당히 자신을 갖고 시작했으나 곧 유랑민 추장이 낙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소년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애들과 여인들만 가끔 수업에 참가하였다.

하룬은 안락한 자기 아버지의 집과 특히 사워할 물이 그리웠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웠다.

그가 특별히 기가 죽어 있을 때 전에 학교 동창이었으며 다른 유랑민 무리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오스만을 만났다.



열심히 듣고 있는 젊은 부인반

“하다아드 타카안 바,  
하다아단 아콘 바로.  
(아는 것은 가르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오스맨은 문맹 퇴치 운동과 자기가 유랑민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그는 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운동을 위해서 낙타에 짐신는 것까지 도와 주었어. 나는 전에는 낙타를 만져 본 적도 없었어. 그리고 너 이걸 아니?” 오스맨은 자기 옆에 있는 낙타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낙타에 짐을 실은 후에 이 동물은 내가 일어서라고 명하자 그대로 순종했어.”

그들이 헤어지고 나서 하룬은 오스맨이 한 말과 그의 즐거운 경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아마 나는 대통령이 주신 과제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나봐. 나는 유랑민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만큼 유랑민이 알아야 할 것을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통령의 말씀을 가만히 되뇌어 보았다. “하다아드, 타카안 바, 하다아단 아콘바로. (아는 것은 가르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그날 밤 그는 모탁블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는 주장 압디가 과거의 소말리아 영웅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사로잡혔다. 그는 잠들기 전에 소말리아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좀더 나은 목적지를 찾기 위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수업을 하거나 이야기를 기록할 시간이 없었다.

하룬은 도움이 되려고 애썼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그 무리의 일원이 다 된 것같이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았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으나 주장 압디는 그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염려했다. 그는 젊은이를 보내서 열내리는 약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수목을 찾게 했다. 그는 하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마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모양이지. 미개척지의 생활은 힘들지.”

그러나 이제 하룬은 가르치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배우고 싶어했기 때문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다. 추장은 그가 회복된 뒤에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는 자기 종족에게 수업에 참석하라고 명하였다.

때로는 오후에 젊은이들이 넓게 퍼진 아카시아 나뭇 가지 밑에 모일 때 낙타떼가 그늘에 같이 모일 때도 있었다. 이것은 하룬이 영어를 배운 도시의 교실과는 상당히 달랐다. 또한 낙타의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가 먼지나는 대기에 짝 찼다.

유목민 가운데 일부는 똑똑한 학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어린 아이들은 염소떼를 몰면서 알파벳을 외었다. 그들은 염소가 아무거나 발견하는 대로 뜯어 먹는 동안에 흠 위에 글자를 썼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이 정착촌을 비치는 동안에 하룬은 몇 주 전에 추장이 해준 이야기를 읽어 주었다. 사람들은 완전히 매혹되어 앉아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부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룬이 이야기를 끝낼 때 압디 추장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 참 멋진데, 하룬. 우리 이야기를 기록해 두면 우리 자녀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을거야. 나도 쓰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추장 압디는 진지한 학생이 되었으며 그가 계속해서 격려하자 다른 사람들도 더욱 정구적으로 참석했다.

나중에 하룬과 수천 명의 소년 소녀가 미개척지에서 8개월을 지낸 후에 수도로 돌아오자 모가디시오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졌다.

수많은 군중이 그들을 환영하고 문맹 퇴치 운동의 한 단계가 더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길가에 늘어섰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이 젊은이들은 다시 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 미개척지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기 나라가 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좀 더 잘 인식하고 이해했으며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목민의 기술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조상의 소말리아 유목 문화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하룬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끄러운 시가지를 통과하여 강렬하고 분명한 낙타떼의 냄새를 맡았다. 그의 마음에 수많은 추억이 물려 왔다. 그 순간 그는 구획 끝의 모서리에서 낙타떼가 돌아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동차와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서로 밀치고 있었다. 한 부시인이 낙타떼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하룬은 그 유목민에게 가서 말을 걸었으며 그가 압디 추장의 종족을 잘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하룬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는 그 사람의 옷자락 주름 사이에서 수많은 날을 보낸 흔적이 있었다. 하룬은 그 편지를 펴고 그 종족의 수많은 사람이 쓴 인사말을 읽었다. 그것은 추장 압디가 직접 쓴 것이었다. 그는 하룬이 자신과 자기 백성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하룬은 압디도 대통령의 이 말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다. “아는 것은 가르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



## 숨은 그림 찾기



나뭇잎 속에 감추어진  
 앵무새, 도마뱀, 바나나, 달팽이, 나무늘보,  
 꿀벌, 개미핥기, 나비, 벌새, 뱀, 두꺼비,  
 화살촉을 찾아 낼 수 있습니까?

